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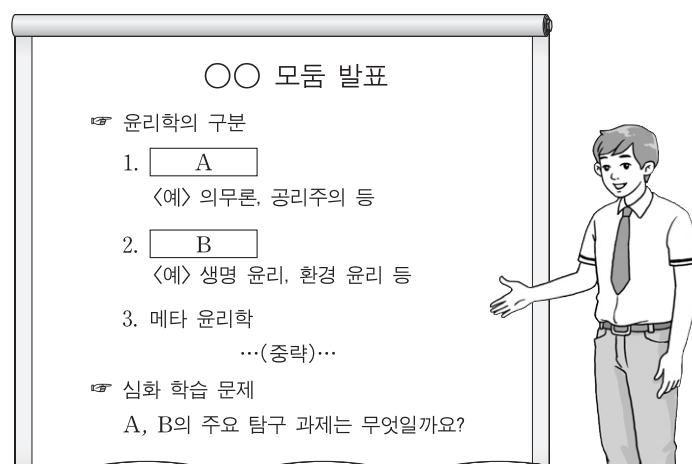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의 ‘심화 학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lt;보기&gt;

- ㄱ. 사회 규범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 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엄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 법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ㄹ. 도덕 원리를 적용해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A	B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집단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

- ①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고양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② 사회 구조의 도덕성은 개인 행위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 ③ 정치적 강제력은 집단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부적절하다.
- ④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
- 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발돋움하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웃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못한다.
-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웃음은 그름에서 말미암고, 그름은 웃음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들로 말미암지 않고 자연[天]에 비추어 본다.

- ① 무위(無爲)의 원리를 실천하여 도덕적 본성을 확충한다.
- ② 욕심을 버리고 도(道)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 ③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열반(涅槃)을 지향한다.
- ④ 신독(慎獨)으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연행을 삼간다.
- ⑤ 인위적 노력[僞]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한다.

4.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묻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과 분리된 궁극적 존재의 힘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그 궁극적 존재에 속하여 있음과 동시에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인간은 성스러운 삶보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진리의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인간은 삶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초월성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인간은 어떤 존재에도 귀의(歸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5.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OO신문	0000년 00월 00일
기업가의 바람직한 자세	
<p>최근 들어 일부 기업가들이 탈세, 회계 조작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어느 사상가가 주장한 ‘자본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칼뱅의 예정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본받아 기업가들은</p>	
⑦	…(후략)…

- ①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 ② 사치와 낭비 대신에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 ③ 부의 축적을 지양하고 재산의 사회 환원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배금주의가 아니라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6.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목적이 없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

을: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자기 보존과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

병: 대지는 단순한 토양이 아니며, 식물, 동물과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는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려고 한다.

## &lt;보기&gt;

- ㄱ. 갑은 을과 달리 기계론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생명을 이해한다.  
 ㄴ. 갑은 병과 달리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본다.  
 ㄷ. 병은 을과 달리 윤리적 고려의 대상을 무생물에게까지 확대한다.  
 ㄹ. 갑, 을, 병은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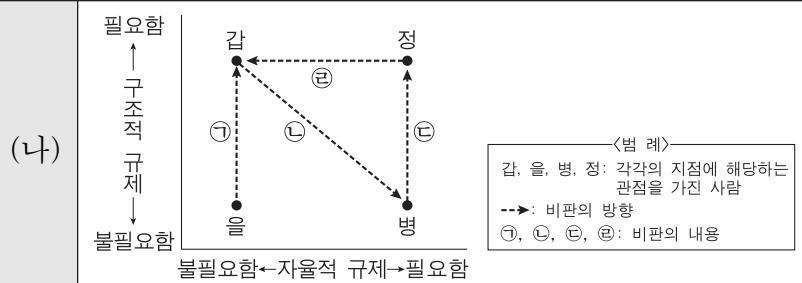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내용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나)의 ㉠~㉡에서 고른 것은?

(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을 막는 방법에는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가 있다. ‘자율적 규제’는 도덕적 행위 규범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구조적 규제’는 일탈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의 의무화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두 가지 규제 각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점들 서로 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 &lt;비판의 내용&gt;

- A: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에 쉽게 빠져 듦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된다.  
 B: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탈 방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 |          |          |          |          |
|----------|----------|----------|----------|
| <u>A</u> | <u>B</u> | <u>A</u> | <u>B</u>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          |

8.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와의 가상 대답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자: 선생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와 함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자율성이란 무엇을 의미 하나요?

사상가: 자율성이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그 행위는 \_\_\_\_\_ ㉠

- 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② 장기 제공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③ 장기가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④ 장기 제공자의 인격적 가치를 해손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⑤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인위적 조작이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9. (가), (나)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가) 이질적 요소가 유입되어 구심력이 약화되면 사회는 와해 된다. 이질성을 제거하고 통합성을 강화해야 사회는 발전한다. 따라서 중심 문화가 소수 문화를 흡수해야 한다.  
 (나) 야채나 과일이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소스와 어우러질 때 맛있는 음식이 된다. 따라서 여러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대등하게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① 다양한 문화가 동등하게 어울리면서 공존해야 하는가?  
 ②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③ 중심 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의 단일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④ 소수 문화는 중심 문화 속에 편입되어 동질화되어야 하는가?  
 ⑤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하는가?

1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사상가 갑, 을의 정치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신임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을: 주권 재민의 원리에 따라 개인은 평등하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참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권리를 지켜줄 때 나의 권리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 학생 답안

정치에 있어서 ㉠ 갑은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 은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책무를 강조한다. ㉢ 갑은 통치자가 데려온 것을 강조하고, ㉣ 은 시민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 갑은 백성을 위한 덕치(德治)를, 을은 시민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둘 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禮)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에 편입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에 합하면 재상에 올린다.

을: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내려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 벼슬길에 올라도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다.

- ① 갑은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② 을은 선비가 육체노동을 피하고 학문에 전념할 것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후천적 노력보다 타고난 능력을 중시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정할 것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사회 분업의 폐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한다.

## 12. 갑, 을의 예술관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음악의 근본 요소는 화음이며, 음악의 본질은 리듬이다. 음악은 실제 세계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아니다. 음악의 형식은 음 자체의 결합이며, 음악미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음과 음의 예술적 결합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을: 음악은 노랫말, 선율,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에서 노랫말이 중심이 되며, 선율과 리듬은 노랫말을 따라야 한다. 좋은 음악의 노랫말은 덕을 지닌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

- <보기>
- ㄱ. 갑은 음악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ㄴ. 을은 음악이 올바른 품성의 도야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음악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음악에서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13.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 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나)	소수의 다양한 의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

-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 ②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 ③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 ④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 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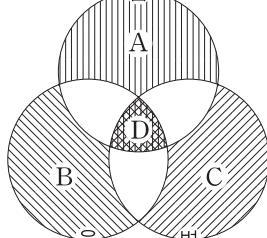
## 14.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禮)에 합치되면 그것이 곧 인(仁)이니, 하루라도 그렇게 한다면 온 세상이 인을 따르게 된다.
	(A)
	(B)
	(C)

(나) [가로 열쇠]  
 (A): 마르크스가 추구한 이상 사회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 사회.  
 (B): '조화[和]를 이루지만 같지 않음'을 가리키는 사자성어.  
 (C): 악행에 대비되는 착한 행실.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모두가 아닌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추구되는 것이다.
- ② 인위적인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것이다.
- ③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 ④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사익보다 우선시되는 것이다.
- 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보편적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다.

##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된다. 을: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병: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나)	 <p>&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 <보기>
- ㄱ. A: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
  - ㄴ. B: 복지를 위한 정부의 모든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 ㄷ. C: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ㄹ. D: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학에는 사회 집단의 정치적 관계, 가치관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과학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나 가치를 반영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함께하는 '화장된 동료 공동체' 가 절실히 요구된다.

## &lt;보기&gt;

- ㄱ. 과학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가?
- ㄴ. 과학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 ㄷ. 과학은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가?
- ㄹ. 과학 관련 논의에서 과학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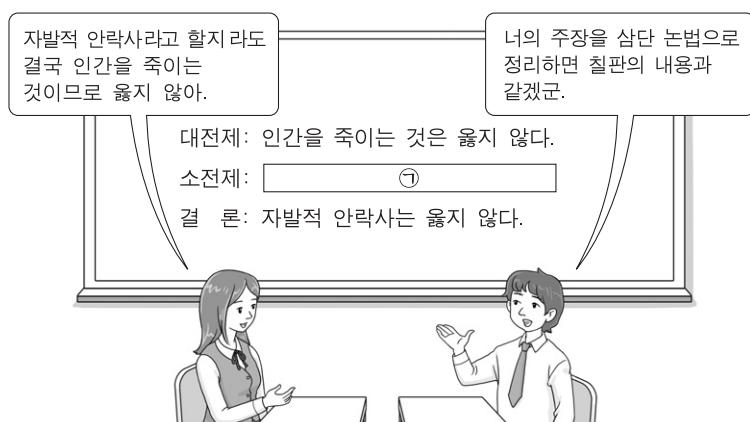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전통 의례에 반영되어 있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혼은 혼인이라고 하는데, 혼(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의미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의미이다.
- 대례(大禮) 중 합근례(合脣禮)에서는 하나의 박을 쪼개 두 개로 만들어 술을 나누어 마신 후 다시 하나로 만든다.

- ① 부부의 관계는 이해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 ② 부부의 역할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한다.
- ③ 부부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위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 ④ 부부는 각자의 독자적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 ⑤ 부부는 결혼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18.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
- ② 환자의 요구에 반하여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 ③ 환자가 뇌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
- ④ 시한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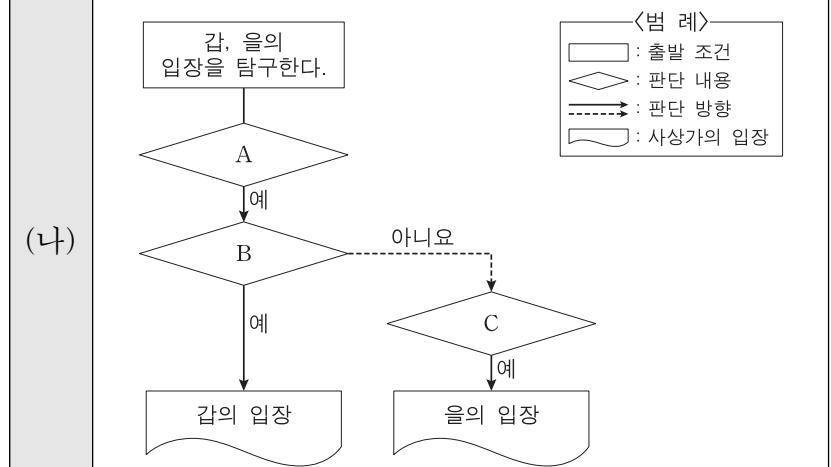
19. (가)에 반영되어 있는 사상적 관점에서 (나)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에게 넌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안쓰러워하지.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해.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 ...(후략)...</p>
(나)	<p>체육 대회를 맞이하여 A가 속한 학급 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모여서 단체로 응원 연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A는 점심을 먹은 후 쉬고 싶은 마음에 응원 연습에 참가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p>

- ① 좌망(坐忘)을 통해 친구들을 편견 없이 대하도록 해.
- ② 서(恕)의 정신으로 친구들의 입장을 헤아려 행동해야 해.
- ③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정(禪定)을 닦아야 해.
- ④ 친구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허심(虛心)의 태도가 필요해.
- ⑤ 모든 친구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비(慈悲)의 마음을 지녀야 해.

2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은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p>갑: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류의 고통 감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국가의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을: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빈곤의 문제는 주로 정치 체제의 결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p>
-----	--



- ① A: 해외 원조는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② B: 국가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춰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 ③ B: 인류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 ④ C: 빈곤 문제 해결에서 사회 제도의 개선이 중시되어야 하는가?
- ⑤ C: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의 수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